

太陽人 解僂病 考察

林奎誠*

I. 서론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는 解僂病을 太陽人 固有의 病이라고 言及했다. 本人은 內經에서 시작된 解僂病의 언급부분을 살펴보고 註家들의 註釋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解僂病에 있어서 李濟馬가 새롭게 강조한 解僂病의 樣狀(弱不弱壯不壯, 上體完健 下體解僂)은 內經自體에서는 言及된 부분이 없었다.

한명의 太陽人이라 여겨지는 患者의 下體無力症狀이 (解僂病이라 보여진다) 五加皮壯脊湯을 복용하여 好轉되었다. 東醫壽世保元에서 言及된 것처럼 忿怒와 悲哀感의 발생이 이 症狀을 惹起시킴을 볼 수 있었다.

II. 본론

李濟馬 本人은 解僂病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한다.¹⁾ 그의 짧은 太陽人 治療經驗에도 불구하고²⁾ 이 解僂病과 아울러 열격을 太陽人 固有의 病症이라고 보았

는 데³⁾, 本人은 解僂病에 관한 內經文獻과 東醫壽世保元に 언급된 解僂病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解僂病이라 보여지는 治驗例 1 件을 통해 太陽人 解僂病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內經에서 말한 解僂症

診要經終論

夏刺春分病不愈令人懈惰

平人氣象論

尺脈緩 謂之解僂

玉機眞臟論

冬脈太過則 令人解僂

風論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肢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在鼻上 其色黃

痺論

脾痺者 四肢懈惰 發欬嘔汁 上爲大塞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病能論

帝曰 有病身熱懈惰汗出如浴惡風少氣此爲何病 岐伯曰 病名曰 酒病

刺要論

刺骨無傷髓 髓傷則銷鑠筋酸 體解休然不去矣

四時刺逆從論

夏刺經脈 血氣乃竭 令人解休

2.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 개인이 언급한 解休病

論曰 此證卽 太陽人 腰脊病 太重證也 必戒深哀 遠嗔怒 修清定 然後 其病可愈 此證 當用 五加皮壯脊湯 解休者 上體完健而 下體解休然 脚力 不能行去也而其脚 自無痲痺腫痛之證 其脚 亦不甚弱 此 所以 弱不弱 壯不壯 寒不寒 熱不熱而 其病 腰脊病也 有解休證者 必無大惡寒發熱 身體疼痛之證也 太陽人 若有大惡寒發熱 身體疼痛之證卽 腰脊表氣充實也 其病易治 其人亦完健

3. 圖解 東醫壽世保元에서 본 解休病

金亨泰는 解休病을 轉換性 히스테리로 보았다. 그 이유는 東醫壽世保元에 기록된 解休의 病症 樣態를 보면 可逆性이라는 것과 痲痺腫痛의 症狀이 없으며, 精神적인 문제와 많이 연관시켰다는 점이다.

4. 內經의 解休病과 李濟馬가 본 太陽人 固有 病症 解休病的 차이점

李濟馬는 解休病을 可逆性인 病으로 본 듯 하다.

東醫壽世保元에서 解休病을 可逆性인 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弱不弱 壯不壯 謂之解休” 이란 부분인데, 그 문장은 王冰이 解休을 註釋한 문장에 불과할 뿐, 內經 자체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解休을 설명한 곳은 없어 보인다. 王冰이 무엇을 근거로 解休을 “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 亦不可名 謂之解休” 이라고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註家들의 註釋을 보면 王冰의 이러한 症狀 定意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內經 자체에서는 解休의 病症이 可逆性이라는 암시를 주는 구절은 찾아보기 힘들다. 內經 素問의 玉機眞臟論에서는 “冬脈太過卽 令人解休” 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馬蒔의 註釋에 王冰의 “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 亦不可名 謂之解休” 내용을 解休의 症狀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과거 王冰이 解休을 푼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素問의 刺要論에서는 “髓傷卽 銷鑠筋酸體解 然不可去矣” 라고 했는데 王冰의 註釋에서는 여기서 또 解休의 樣態를 “寒不寒熱不熱 弱不弱壯不壯 亦不可名 謂之解休”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內經의 문장들, 그 註釋들을 볼 때 解休病證이 可逆性을 띠는 언급은 비록 王의 註釋에 설명되어 있지만 太陽人 解休病證을 설명하기 위해 찾아낸 李濟馬 본인의 獨創의 견해에 가깝다는 結論에 이를 수 있을 듯 하다.

李濟馬는 解休病에는 痲痺와 腫痛의 症狀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內經에는 痲痺腫痛의 症狀이 없다고도, 있다고도 언급하지 않았다.

李濟馬는 解休病을 下體無力의 病으로 국한시켰다. 上體는 完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內經에서는 下體의 病으로 보기도 했지만 -靈樞經의 海論, 素問의 刺要論-四肢全體의 病으로 본 견해가 더 지배적인 듯 하다. 素問의 風論, 痺論, 病能論에서는 구체적으로 四肢의 病으로 본 듯하다.

그리고 解休病證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

에서 內經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들었다. 診要經從論, 痺論, 病能論부분에서는 脾病으로 脾虛에서 그 原因을 찾았다. 平人氣象論의 내용은 그 註釋이 그 原因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는데⁴⁾ 脾虛와 熱而無血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刺要論에서는 髓傷을 그 原因으로 보았다. 四時刺逆從論에서는 夏刺經脈 血氣內竭을 그 原因으로 보았다.

以上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1. 內經에서 언급한 解休과 李濟馬가 太陽人 固有의 病症으로 언급한 解休病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理由는 可逆性的의 근거라고 보여지는 “寒不寒熱不熱 弱不弱壯不壯 亦不可名 謂之解休” 부분이 內經의 正統解釋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癱痺腫痛의 症狀이 없다는 것과 上體는 完健하다는 새롭게 추가된 견해, 또 하나는 內經과는 다른 原因論과 治法, 治方이다.

2. 약간의 聯關性도 찾아볼 수 있는데 診要經從論에서 懈惰의 原因을 肝氣의 不足으로 본 註家의 견해⁵⁾, 그리고 病能論에서 懈惰의 病名을 酒風이라 보았는데 이는 心理的의 스트레스를 슬로 풀다보니 病이 發生했다는 原因을 추측해볼 수 있다.

5. 太陽人 解休治驗例 1件

성명 : 신○○ 생년월일 : 1960. 3.12 성별 : 남

군제대 후 대학 3학년에 복학하면서(84년) 解休證 발생,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다리가 우리하면서 걷기가 힘든 것을 느낌. 2달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짐. 이때 본인의 상황은 야학을 하였고, 학생운동에 참가했으며, 분노와 슬픔을 많이 격게 되었다고 함.

86년 2월 졸업 때부터 消化不良. 주먹만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될 정도. 심한 便秘 발생. 消化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解休證 다시 발생. 육교를 올라

가기 힘들 정도로 심해짐. 1년 정도를 지속함. 심한 腰痛까지 발생. 病院에 가서 診察을 받아 보았으나 이상 없음으로 밝혀짐. 消化 狀態는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음. 韓醫院에 가서 藥을 먹어도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함. 다만 針治療로 腰痛이 호전. 처음으로 少陽人 體質 診斷을 받아 石膏가 든 韓藥을 복용. 그러나 症狀은 여전.

졸업 후 1년 후 안현필 식사법을 하게 됨. (87년에서 88년까지 1년 반정도) 諸症狀이 약간 경감되는 것을 체험. 解休證은 평소에도 脚無力感은 느끼나 심하게 걷기가 부담스러운 정도는 1-2주에 한 번 정도 발생. 한 번 발생하면 하루 또는 2-3일 정도 지속했다가 다시 괜찮아짐.

針治療로 腰痛이 호전된 것에 영향을 받아 韓方에 관심을 갖게 됨. 혼자서 東醫壽世保元을 읽고 少陰人으로 자가진단을 내리고 少陰人 飲食으로 體質食을 하게 됨. (89년) 하루 이틀 정도 호전되는 듯하다가 그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감.

95년도 11월 의정부의 ○○韓醫院에서 太陽人 診斷을 받고 五加皮壯脊湯을 복용. 3첩 먹고 그 다음날 처음으로 便을 시원하게 봄. 군대 제대 후 8년 가까이 한 번도 대변을 시원하게 못 보다가 처음으로 大便을 시원하게 많은 量으로 보았다고 표현함. 소변량과 횡수도 증가. 脚無力感도 크게 호전. 소화도 상당히 양호해 짐. 체반 몸 상태도 크게 좋아짐. (잠도 양호하게 잘 자고. 기운도 생기고)

그 이후 韓醫大 문제로(96년) -환자는 타학교를 졸업하고 韓醫大에 94년에 입학했다. -열심히 뛰면서 활동하다 다시 안 좋아짐. (소변 횡수도 줄고, 대변 보기도 힘들어 짐) 본인의 표현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많이 가졌다고 함. 다시 오가피장척탕을 3재나 먹었지만 이때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함. 그 이후 다시 방문하여 약간 다르게 처방한 오가피장척탕 변방을 복용하고 호전

됨. (소변량, 횡수가 늘고 대변 보기가 편해짐) 지금은 근 무력증상이 2-3주중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편이라고 함.

發病誘引을 놓고 생각해 볼 때 精神的의 스트레스라고 보여진다. 本人의 표현을 놓고 보면 한번 크게 화를 내면 즉시 몸이 안 좋아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낀다고 함. 口中吐沫여부는 1-2달에 한번 정도 매운 것을 먹는다든지하여 음식 조절을 잘못 했을 때 발생한다고 함.

以上の 治驗例를 考察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1. 患者의 脚無力病症은 痲痺腫痛을 띠지 않았다.
2. 可逆性을 나타내었다.
3. 原因論에 있어서 脚無力的 原因이 後世家들은 주로 脾虛로 보았는데 본 患者는 脾虛에 기초한 治療가 전혀 效果를 보지 못 했다.
4. 誘發因子로서 精神的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忿怒와 悲哀感이 크게 작용했다.
5. 太陽人 解休病治方으로 언급된 五加皮壯脊湯으로 크게 好轉됐다.
6. 증상이 호전될 때 대변과 소변을 양호하게 보았다.

위의 발견 사실을 놓고 볼 때 본 患者가 가졌던 脚無力病症은 太陽人 固有의 解休病이라고 여겨지며 李濟馬가 내놓은 治療法은 效果를 띠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本人의 考察은 不足한 점이 많다. 參考한 文獻의 不足, 治驗例의 不足 등이 그 理由가 될 것이다. 解休病의 앞으로의 研究는 李濟馬 本人이 말한 것처럼 다른 體質에서 나타나는 脚無力病症과 太陽人 解休의, 實際比較와 治療法, 治方의 차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總體的으로 太陽人 病에 대한 病證部分이 너무 간략한데 解休열격 외의 다른 病證과, 보다 效果가 높은 治療法研究

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精校 東醫壽世保元 李濟馬 著 73쪽
2. 醫部全錄 大成出版社 12卷 懈惰門中에서 380-385쪽 1卷 180쪽, 222-223쪽
4. 圖解 東醫壽世保元 講義錄 金亨泰 著 815-826쪽

주(註)

1. 余 稟臟太陽人 嘗得此病 六七年 嘔吐涎沫 數十年 (精校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內觸 小腸病論 小腸病論 74쪽)
2. 論曰 藥驗 不廣者 病驗 不廣故也 太陽人 處方을 설명하고 난후, 太陽人 藥의 經驗이 적은 이유를 太陽人 病의 治驗例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精校 東醫壽世保元 76쪽)
3. 或曰 一內經所論 解休者 安知非少陰少陽太陰人 病而 吾子必名目曰 太陽人病 莫非牽強附會也 願聞其說 一 解休者 上體完健而 下體解休然 疝痰 不能行去之謂也 少陰少陽太陰人 有此證即 他證 疊출而 亦必無寒不寒熱不熱 弱不弱壯不壯之理矣 (太陽人 內觸 小腸病論中에서, 精校 東醫壽世保元 75쪽)
4. 平人氣象論의 “尺脈緩 謂之解休” 註釋部分중 王冰은 尺爲陰部復腎主之 緩爲熱中瀼爲無血 熱而無血故 解休 病不可名之 然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 休不可名謂之解也 乃如是也 라고 주석했다. 張志聰은 緩爲脾脈瀼主臟氣不足 解休 懈惰也 此脾臟之爲病也

5. 診要經從論의 夏刺春分病不愈令人懈惰 부분을 王冰은 다음과 같이 註釋했다 肝養筋 傷春分即 肝氣不足故 筋力懈惰 馬蒔는 다음과 같이 註釋했다. 若夏刺春分即 取肝膽之經穴也 肝養筋 肝氣不足故 筋力懈惰 그러나 張志聰은 다른 見解를 보였다. 그는 脾臟의 病으로 보았다. 三月四月 人氣在脾 脾病不愈 故 令人懈惰

ABSTRACT

TAE-YANG person' s Hae-Yeok disease Investigation

Lee-Jae ma referred Hae-Yeok disease as a TAE-YANG person' s peculiar disease in Donguisusaebowon. I looked around referred portion of Hae-Yeok disease in Internal Classic and the annotation of that part. As a result, newly emphasized state of Hae-Yeok disease - that is "weak but not weak, strong but not strong" " the upper part of body is healthy, but the lower part is hae-yeok." - is not existed in Internal Classic itself.

A person regarded as TAE-YANG person with Hae-Yeok disease is changed for the better by taking Ogapijangcheoktang. And as mentioned in Donguisusaebowon, rage,sorrow cause to appear and grow worse this dease.